



[산업] 위기의 아시ана 자산팔고 노선 줄이고 조직 슬림화 06



Life

[라이프] 프로야구도 식후경 식품·외식업계 S마케팅 '대목' 나



사랑·존경의 마음 담아... 애경, 소외이웃에 '온기'

〈愛〉 〈敬〉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12 애경산업

마포구 어려운 가정에 나눔 실천 저소득 아동에 씨앗장학금 전달

이주배경 청소년 장학기금 행사 소외이웃에 세제 등 생활용품 지원 김장·연탄 나눔 봉사활동 이어가

애경산업은 '사랑(愛)과 존경(敬)'이라는 기업명이자 기업이념을 실천하고자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자칫 관심 밖으로 밀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15년부터 애경산업 창립기념일인 4월 25일을 기념해 이주 배경 청소년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10여 년간 '사랑의 연탄나눔'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지역 밀착형 봉사활동인 '희망디딤돌'을 이어오고 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단순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애경산업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땀을 흘리고 기업이념인 사랑(愛)과 존경(敬)을 실천할 수 있어서 뜻 깊다"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아동 위한 '마포사랑 마음잇기' 애경산업은 올해 3월 마포구 및 (사)희망나누는사람들과 함께 '마포사랑 마음잇기'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애경산업은 협약식과 더불어 디딤씨앗장학금의 일환으로 저소득 아동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으며, 기초수급자 가정 및 사회복지기관을 위해 약 2억원 상당의 치약, 칫솔, 세제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애경산업 측은 "앞으로도 마포구 관내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꾸준한 사회공헌을 계획, 실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창립 33주년 맞아 33명의 이주배경 고교생과 나눔 실천

지난해 4월 25일에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애경산업은 이를 기념해 '나눔'을 테마로 정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장학기금' 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이주 가정 배경의 고교생 33명에게 연간 학비를 전달했다. 장학금은 1인당 250만원씩, 총 8250만 원 규모다.

이주배경 청소년 장학기금 행사는 지난 2015년 애경산업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이후, 매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창립기념 횡수만큼의 장학생을



1 애경산업의 김장나눔 현장. 2 지난 3월 28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마포사랑 마음잇기'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사)희망나누는사람들의 김정안 회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애경산업 송기복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 지난해 진행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현장. 4, 5 지난해 열린 희망꾸러미 나눔 행사 현장. /애경산업

선발한다는 계획을 세워 창립 30주년에 청소년 30명에게 장학금 총 7500만원, 31주년인 2016년에는 총 31명에게 7750만원을, 32주년인 2017년에는 총 32명에게 8000만원을 지원했다. 4년간 후원비용은 총 3억1500만원으로, 이 기금은 매월 애경산업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비용과 회사가 반반씩 조성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7년째 저소득 가정 위한 나눔 행사 애경산업은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와 함께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희망꾸러미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7회째를 맞이한 희망꾸러미 나눔행사는 애경산업의 대표적인 송년나눔행사로 자리잡았다.

이 행사는 애경산업 임직원이 세제, 삼푸, 치약 등 11종의 필수 생활용품을 희망꾸러미에 직접 담아 서울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및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행사로, 현재까지 2만 1000가구에 24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연말 소외된 이웃 위한 김장나눔 애경산업은 지난해 12월 18일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15회째 이어져온 김장 나눔 행사는 매년 애경산업 임직원이 직접 담근 김치를 미혼모가정 및 홀로 어르신 가정 등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캠페인이다.

또한, 애경산업은 2008년부터 12년째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철거민촌에서 진행됐으며, 연탄

5000장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세탁세제, 삼푸, 치약 등의 애경 생활용품을 철거민촌 거주 주민들에게 전달해 나눔을 실천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